

“고통은 예술의 자양분... 놀이하듯 풀면 어느새 치유”

광주 트라우마센터 강연 유지나 동국대 교수



마치 모노드라마 한편을 보는 듯했다. 배우 한 명이 모든 배역을 소화하는 모노드라마를 볼 때처럼 150여 명의 청중들은 1시간 30분 동안 무대 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벨벳 소재 검은색 원피스 위에 붉은 스카프, 여기에 빨간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당함과 여유가 느껴졌다. 청중들은 열정적인 강연에 연신 박수를 화답했다.

지난 23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유지나(여·53) 교수의 강연은 일반적인 특강과는 사뭇 달랐다.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이자 한국영화학회 이사, 한국영화인회의 공동의장이라는 수직이름이 보여주듯이 영화 전문가인 그녀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놀이’를 제시했다. 그녀는 놀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영화를 통해 보여줬다.

유 교수의 강연은 ‘고통으로 지어내는 예술-놀이’

라는 주제로 영화를 보며 진행됐다. 이따금 무대에서 내려와 청중과 눈높이를 맞추며 ‘놀이’ 같은 강연을 펼쳤다. 전라도의 ‘맛’과 ‘흥’을 좋아한다는 그녀가 제시한 개념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이다. 루덴스는 라틴어로 ‘놀이’라는 의미이다. 즉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네덜란드 역사가인 요한 호이징하는 1938년에 출간한 자신의 책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가 문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놀이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는 나치에 반대하다가 자유를 박탈 당했다. 전쟁의 총성이 끊이지 않던 시대, 나치에 의해 가장 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던 그는 ‘합리적 인간’의 요구심을 갖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제일 힘든 시기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루덴스를 발견한 것이다.

“인생이 아플 정도로 ‘쓰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됐죠. 시를 쓰고 그림을 그

리는 모든 것이 고통 없이 될 수 있나요? 트라우마센터 초청으로 광주에 왔는데요. ‘트라우마’란 단어에 끌려 광주에 왔죠. 인간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성형수술, 항생제 소비량, 자살률, 고독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이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항목들이다. 그녀는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가 지나치게 엄숙하다 보니 ‘음주가무’를 터부시하고 결국 비극적인 항목에서 1등이 되고 말았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일에 중독된 개미’에서 ‘즐겁게 노는 배짱이’가 되라고 제안한다.

유 교수는 한국과 이탈리아, 콩고에서 만든 영화를 보여주며 ‘놀이의 힘’을 청중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재소자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연극을 하며 삶의 행복을 되찾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아프리카 밤 거리를 떠돌던 부랑자들 역시 자신들의 아픔을 노래한 음악으로 유럽까지 진출해 커다란 사랑을 받는다. 영화에 등장

하는 재소자들과 부랑자들에게 연극과 노래는 곧 ‘놀이’였다. 영화는 놀이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했음을 잔잔한 감동과 함께 보여준다. 실제 이야기로 만든 영화이기에 강연을 찾은 이들 역시 큰 감명을 받았고, 영상이 끝나자 커다란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군화발에 짓밟히며 모든 감정을 참고 억누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병이 됐어요. 30년이 넘도록 아픔과 눈물을 속으로만 삭혀야 했는데 시원하게 풀어 해줬더라면 그게 곧 놀이와 예술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다면 이런 트라우마도 남지 않았겠죠.”

강연이 끝마무리 될 즈음 한 5·18 유가족이 응어리가 되어버린 지난 세월을 털어놓았다. 생생한 증언을 들은 유지나 교수는 말 없이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이를 지켜 보던 청중들은 상처받은 광주시민들의 넋을 위로라도 하는 것처럼 커다란 박수를 보내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도 ‘자랑스런 전남인상’ 1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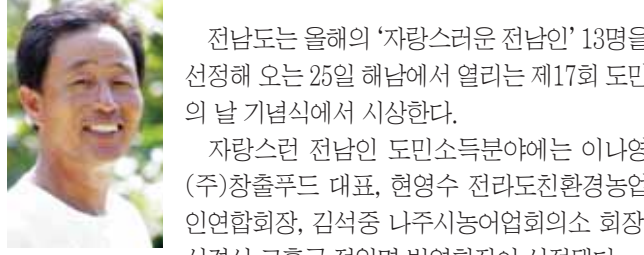
이나영씨, 현영수씨, 김석중씨, 신경식씨



정철씨, 윤보선씨, 박용구씨, 송영수씨



최상준씨, 윤춘자씨, 김동국씨, 최현수씨



김승일씨

전남도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전남인’ 13명을 선정해 오는 25일 해남에서 열리는 제17회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자랑스런 전남인 도민소득분야에는 이나영(주)창출푸드 대표, 현영수 전라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석중 나주시농어업회사 회장, 신경식 고흥군 점암면 변영회장이 선정됐다.

관광·예술·체육분야는 정철 호남대학교 홍보실장, 윤보선 전남도스기협회장, 박용구 전남도축우협회 부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회봉사분야는 송영수 순천상공회소 회장, 최상준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윤춘자 전남도약사회 부회장, 김동국 해남종합병원장이 상을 받는다.

기타분야는 최현수 신안천일염권역종합정비사업추진위원장, 김승일 전남도행복마을협의회회장이 수상한다. /오광록기자 krah@

전남우정청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함께 해요”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23일 총장로 광주우체국앞에서 우정청 및 우체국 직원 등이 나서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함께 해요’ 거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총장로 번영회와 기프트론 협찬 식당 등이 적극 참여했으며 거리의 시민들도 손편지 쓰기에 동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헌혈증 800장... 대학생들의 ‘생명 나눔’

14년간 모아...전남과대학, 화순전남대병원에 기증

대학생들이 14년간 모은 800장의 헌혈증을 암 환자 치료를 위해 기부했다.

전남과대학(총장 조성수) 이은철 부총장, 보직교수, 학생대표 등이 23일 화순전남대병원(원장직무대행 정진)을 방문, 헌혈증 800장을 전달했다. 대학생들이 1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모은 헌혈증을 의료기관에 기증한 것은 아주 드문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측은 1999년부터 매학기 학생들의 헌혈증을 기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RCY동호회원 등을 중심으로 모은 헌혈증이 최근 800장을 돌파했다.

이은철 부총장은 “학생들의 정성을 어느 곳에 전달해야 좋을지 수차례 논의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



수술과 치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밝혔다.

학생대표로 동행한 김영선(치위생과 2)양은 “헌혈증을 남을 위해 기부하는 ‘쉽지 않은 결정’에 학우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보람있는 일에 쓰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오카리나 합주로 부르는 사부곡

고 정율성선생 외동딸 정소제 여사, 오늘 남구민 무대 지휘

고(故)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 정소제(70) 여사의 애뜻한 사부곡(思父曲)이 25일 열리는 ‘제2회 남구민 오카리나 대합주’ 무대를 통해 선보인다.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정 여사는 아버지인 정율성 선생이 생전에 작곡한 가곡을 무대에서 지휘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정 여사는 1부 행사 무대 지휘자로 올라 오프닝 곡인 ‘우리는 행복해요’를 비롯해 ‘You’re my sunshine’, ‘아름다운 것들’ 등 총 3곡을 지휘한다. ‘우리는 행복해요’는 1954년 정율성 선생이 중국에서 생활하며 만든 어린이 가곡으로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한 작품이다. 정 여사는 “대합주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주제를 ‘우리는 행복해요’로 결정했는데 이어서 아버지께서 작곡한 노래 제목이 들어오다 애착이 간다”면서 “아버지의 고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연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말했다.



정 여사는 1943년 중국 연안에서 합일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과 중국 최초 여성대사를 지낸 정설송 선생 사이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현재 중국 문화부 산하 바르코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다. 소제(小提)라는 이름은 바이올린을 뜻하는 중국어 소제금(小提琴)의 앞 두글자를 따온 것으로 항일운동 당시 정율성 선생이 아내의 모용가 나오지 않자 아가네 바이올린을 팔아 산 양의 젖으로 외동딸을 키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소제 여사는 지난 2004년 남구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남구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 중국 문화부 산하 정율성 기념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선대 총학, 축제 수익금 아동시설 전달

조선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회장 김국민·사진 오른쪽)가 올해 처음으로 치른 대학 통합축제 수익금을 아동양육시설인 광주 일백원(원장 신용현·가운데)에 전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해마다 가을에 치르는 총학생회 대동제와 각 단과대학 축제를 통합, 올해 처음으로 통합축제 ‘빛고을 보은제’를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조선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출범하여 호남 최고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성원해준 지역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2,131,050원

위해 개최한 ‘빛고을 보은제’에는 광주시민 10만여 명이 다녀가 조선대의 축제에서 광주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조은식·전정실씨 장남 용현군 최숙환(한국전대표)·김영아씨 장녀 미희양=26일(토) 오전 11시 피엔제이웨딩홀 2층 주얼리홀.
▲조철호(청송건설·덕진건설 대표이사)·한경민씨 차남 준환군 이채신·이정애씨 장녀 지은양=26일(토) 오후 5시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고영윤(영암군 부군수)·김영희씨 장남 상현(경찰청 수사국)군 이양·최희애씨 장녀 아영(금호산업 법무팀)양=26일(토) 낮 12시30분 서울 아베뉴웨딩 13층
▲김영한·이희순씨 차남 광기군 정순도(광주지방경찰청장)·임정남씨 장녀 세진양=26일(토)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룸웨딩컨벤션 5층 미소실.

동창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

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제4차 정기이사회 및 한마음 산행=26일(토) 오전 9시 풍암동 금당산, 집결지는 풍암안수 주차장(까만는 건너편) 062-361-2680.
▲재광 흥일고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27일(일) 오전 10시 대자중학교 운동장 010-5248-2294.

향우회

▲재광고흥군향우회 화합한마당 축제 개최=27일(일) 오전 9시 영주체육관 양궁경기장 010-9102-0311.
▲재광보성향우회 월례회=28일(월) 오후 6시 30분 페르마(유동) 062-525-5566, 010-4609-247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제1회 전국 동요경연대회 개최(주최(사)한국음악협회 함평군지부)=11월 9일(토) 오후 2시 함평민회관 2층, 경연부문 및 경연곡은 독창, 중창중(지정곡 1곡, 자유곡 1곡), 자격은 전국 초·중·고·일반 동요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 환영함. 참가 신청은 11월 4일(월), 시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 1팀·우수상 2팀 문의 010-2047-9237(윤선명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인,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

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정서중심코칭2급 자격과정 개설 안내=26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광신대학교 진리관 101호 문의 및 접수 010-8299-6237.
▲경계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참가자=만 22세~45세 구직자 대상, 참가비 무료, 수료증 ‘경계교육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료 후 학교, 단체, 강사활동 가능, 모집기간 25일(금)까지. (사)인재육성아카데미 062-224-7733, http://www.mdsarang.com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가초수업 초중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썬신허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광주광역시지부 특전사=예비 및 회원 수시 모집 062-225-6500, 011-610-5575.
▲바이오밀(유산균·효소) 두암점=장, 소화기 질환, 피곤, 변비, 아기가 이유식, 건강, 아토피, 갱년기, 관절, 대장성질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회원 수시모집 062-266-5800, 010-6614-2320.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임산당 24시간, 무료 속삭이 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침, 문화·교육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지원 062-232-2043.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S-MI)의과대학 편입생=SMMI 졸업시 국내 의사면허시험 및 미국 의사면허시험 응시가능(학사학위자에 한함·예체는 개별 제외) 062-263-3434.

부음

▲이상범씨 별세 승주·재훈·재덕·영희씨 부친상=발인 26일(토) KS영원장례식장 2분향소 062-960-4444.
▲박순란(나주시청 근무)씨 별세 김태환(전남도청 녹색에너지담당관)씨 상배=발인 25일(금) 천지장례식장 062-527-1000.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하이명수님 (남/86세) 子/婦: 이경일/김영순, 경태/고옥례 女/婿: 이은정/이남재 未亡人: 김복애 ●호 실: 201호 ●발 인: 10월 2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301호 하박이수님 (남/72세) 子/婦: 박재호/유민지, 정희/정영란, 재훈/이수연 女/婿: 박미숙/김삼호 未亡人: 송연순 ●호 실: 301호 ●발 인: 10월 25일 ●장 지: 고흥대서 ●연락처: 227-4382
101호 하김연철님 (남/86세) 子/婦: 김수중/김지영 孫: 김상범, 상하 ●호 실: 101호 ●발 인: 10월 2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402호 고고부자님 (여/86세) 子/婦: 최희래, 장수완/김복순 女/婿: 정미화/박정식, 안순자 ●호 실: 402호 ●발 인: 10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2호 하다영석님(남/54세)
 子: 나승민, 승원 女/婿: 송희, 송미 未亡人: 최민희
 ●호 실: 102호 ●발 인: 10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